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동방전기(099410)

자동차·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임재현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전기(099410)

선박용 파이프 스플 전문기업

기업정보(2020/08/14 기준)

대표자	김성호, 홍준근
설립일자	1994년 07월 06일
상장일자	2009년 11월 1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주요제품	선박용 배관, 선박 도장

시세정보(2020/08/14 기준)

현재가	3,5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481억원
발행주식수	13,541,002주
52주 최고가	4,850원
52주 최저가	900원
외국인지분율	0.0%
주요주주	
김성호 외 2인	19.7%

■ 선박용 파이프 스플 전문 조선기자재 업체

동방전기(이하 동사)는 선박용 배관요소(파이프 스플, 파이프 모듈 유닛) 생산과 육상·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2019년 결산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36.3억 원으로, 사업부문별 비중을 보면 파이프 스플 93.5%, 선박·철의장 도장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03월 김성호 대표이사 외에 홍준근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2014년 01월 자회사인 주식회사 동방조선을 설립하였으나, 2016년 09월 합병함으로써 현재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0.5% 성장전망

선박구성 부분품 시장은 선박의 공급과잉, 중국 업체들의 시장잠식 가속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선경기가 점차 회복단계에 있어 배관을 포함하는 조선기자재의 경기도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MAPS 자료(2020년)에 따르면,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출하금액은 2013년 10조 2,688억 원에서 2018년 5조 8,629억 원으로 연평균 10.6% 감소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0.5% 성장하여 2022년 5조 9,70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매출 실적은 반등하였으나, 수익성은 적자 기조 지속

동사는 주요 거래처 동 수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매출 실적이 반등하였으며, 2020년 1분기 매출액 또한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 1분기 수익성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적정 원가율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93.0	-33.9	-6.7	-3.5	-36.9	-19.1	-10.9	-9.6	15.2	-272	2,332	N/A	0.8
2018	170.6	-11.6	-28.3	-16.6	-23.6	-13.9	-8.0	-6.9	15.7	-175	2,176	N/A	0.9
2019	236.3	38.5	-12.6	-5.3	-9.8	-4.2	-3.4	-2.9	19.6	-72	2,108	N/A	1.3

기업경쟁력

25년 이상 축적된 생산기술력 확보

- 1994년 7월 설립 이후 축적된 가접·용접 생산기술력 확보
- 선박용 배관 외에 육상, 해양플랜트 배관 분야 진출

주력사업인 배관사업과 도장사업 병행

- Pipe Spool, Module Unit, Heating Coil, 해양 및 육상플랜트용 배관 등의 배관사업과 철의장, 선박수리, Pipe Piece 도장업무 일부 수행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Pipe Piece

- 탄소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동관으로 소재별 제품 생산
- 주력제품은 강도가 크고 내산화성, 내식성이 강한 탄소강관 스펀

Heating Coil

- Pipe Piece 설치 시 Heating Coil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적용제품

주요 제품군

Pipe Piece



Module Unit



Heating Coil



철의장 및 Pipe Piece 도장



매출실적

- 2019년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백만 원, %)

매출유형	품목	매출액	비중
파이프 스펀	Carbon Steel Pipe	19,462	82.4
	Stainless Steel Pipe	2,051	8.7
	Copper Pipe	156	0.6
	도장(PIPE&철의장)	1,961	8.3
총 합계		23,630	100.0

시장경쟁력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3년	11조 1,680억 원	연평균 10.6%▼ (CAGR 적용)
2018년	5조 8,629억 원	

강선 건조업 사업분야 시장경쟁력

- 주요 전방산업인 강선 건조업(C31111)에는 총 4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음
- 전체 대비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5.0%,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CR3는 75.0%임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시장경쟁력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에는 2,000여 개 기업이 주요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음
-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분석해보면, (주)건화 5.3%, (주)세진중공업 4.9%, 신한중공업(주) 4.1%로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인 CR3는 14.2%임

최근 변동사항

각자대표이사 홍준근 취임

- 2019년 03월 21일 홍준근 대표이사 취임

연구개발 활동 및 계획 없음

- 숙련된 용접기술과 기계장치 성능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력이 판가름나는 일반적인 기술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없음

주요 거래처 동 수주 물량 증가 매출액 반등

- 2019년 주요 거래처의 수주 물량 확대로 매출 실적 반등하였으나, 수익성은 적자 기조 지속

I. 기업현황

선박용 파이프 스펴 전문 조선기자재 업체

동사는 선박용 배관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선박 배관(Pipe System)을 구성하는 파이프 스펴, 파이프 모듈유닛 및 가열코일(Heating Coil)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 회사 개요: 연혁, 주요 관계회사, 주요주주

동사는 1994년 07월 선박용 배관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선박용 배관 제조에 주력해온 조선기자재업체로, (주)현대미포조선, 대선조선 및 오리엔탈머린텍 등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다.

동사는 2019년 결산 기준 별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으며, 주요 주주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김성호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2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년과 동일한 지분 보유율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 현황 및 대표이사 정보

동사는 2019년 03월 홍준근 각자대표를 선임함으로써 최대주주인 김성호 대표이사과 함께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 및 1인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다. 동사는 2020년 3월 기준 127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본사를 두고, 부산광역시 송정동 및 지사동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다.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및 주요 제품 현황

동사는 1994년 설립 이후 배관 전문 제조업체로 선박용과 해양플랜트용 배관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선박 배관(Pipe System)을 구성하는 파이프 스펴, 파이프 모듈유닛 및 가열코일(Heating Coil)의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동사는 도장공장 인수와 선박수리조선소 설립으로 규모는 미미하지만 철의장, 도장 미선박수리의 용역도 병행하고 있다.

동사의 파이프 스펴은 탄소강관(Carbon Steel Pipe)과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tainless Steel Pipe), 동관(Copper Pipe)으로 소재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탄소강관 스펴은 선박 및 해양, 육상플랜트 내의 증기, 물, 가스 및 공기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강관 스펴은 강도가 크고 내산화성, 내식성이 강하여 고온 고압보일러의 증기관, 석유정제용 고온 고압의 유관 등에 이용된다.

동사의 스테인리스강관 스펴은 내식성이 강한 SUS304, SUS316L을 이용함으로써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어 주로 식수용 배관 또는 고압수용 배관으로 제작하고 있다.

동사의 동관 스펴은 열 전도성이 좋고 저온 취성이 없어 저온장치의 열교환기나 LP가스 배관으로 제작된다.

[그림 1] 동사 주요 제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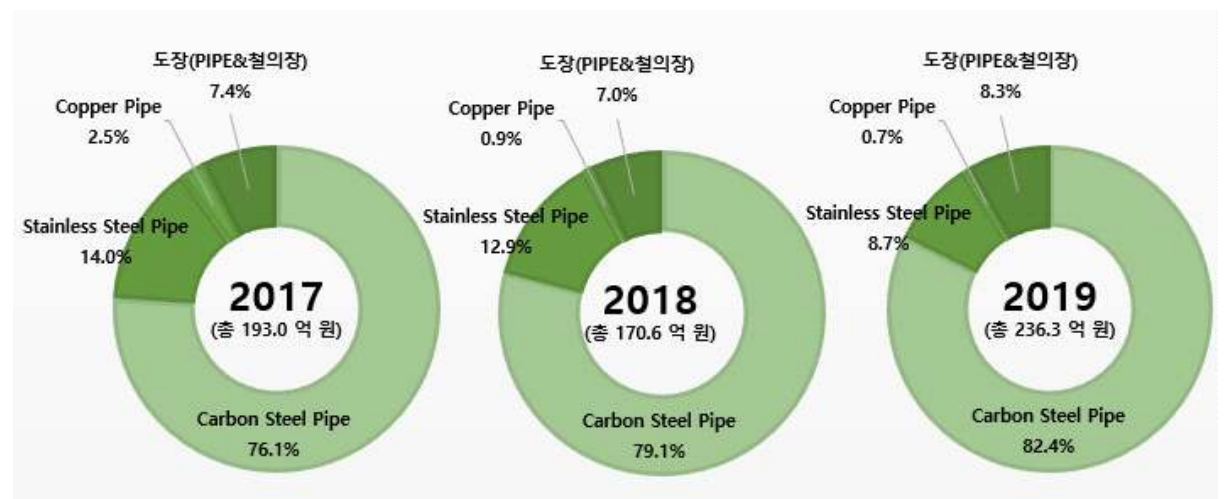
■ **매출실적: 2019년 236.3억 원 매출로 전년 대비 38.5% 성장**

동사의 주요 제품/상품은 파이프 스펴로 품목별 매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19.12.)에 의하면, 동사의 최근 3년간 내수 매출 실적은 2017년 193.0억 원, 2018년 170.6억 원, 2019년 236.3억 원이며, 탄소강관(Carbon Steel Pipe)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동사 최근 3년간 파이프 스펴 매출 실적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인한 성장 지속 중

동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선박배관 시장 외에 육상, 해양플랜트 배관 시장을 함께 공략하고 있으며, 세계 선박용 배관 및 해양플랜트 시장의 경우 2020년 이후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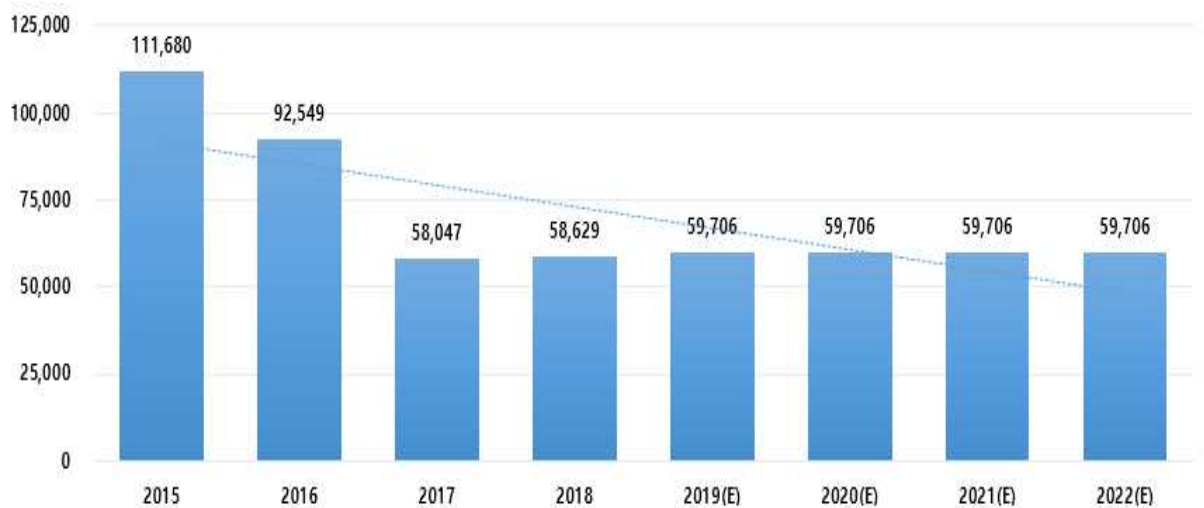
■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 전망

지난 몇 년 간 국내외 조선산업은 선박의 공급과잉, 중국 업체들의 시장잠식 가속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선경기가 점차 회복단계에 있어 배관을 포함하는 조선기자재의 경기도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MAPS 자료(2020년)에 따르면,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출하금액은 2013년 10조 2,688억 원에서 2018년 5조 8,629억 원으로 연평균 10.6% 감소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0.5% 성장하여 2022년 5조 9,70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국내 선박구성 부분품 출하금액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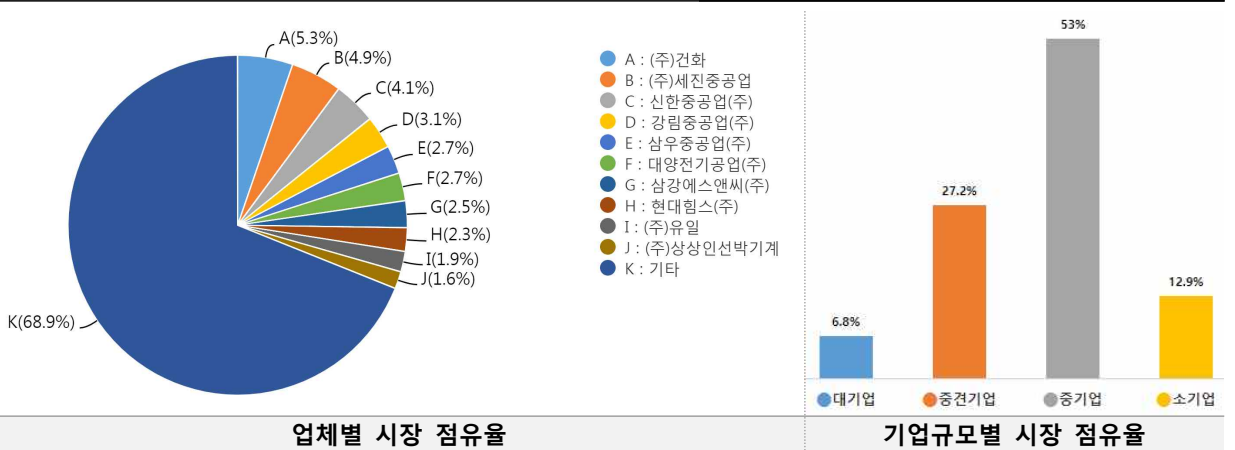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ICE디앤비 재구성

■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4.2%로 집중도가 낮은 시장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의 주요 전방산업인 강선 건조업(C31111)에는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한국조선해양(주), (주)현대미포조선, 대한조선(주),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 등 총 4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기업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다(전체 대비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5.0%). 또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CR3는 75.0%,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2,442로 시장집중도에 따라 분류하면 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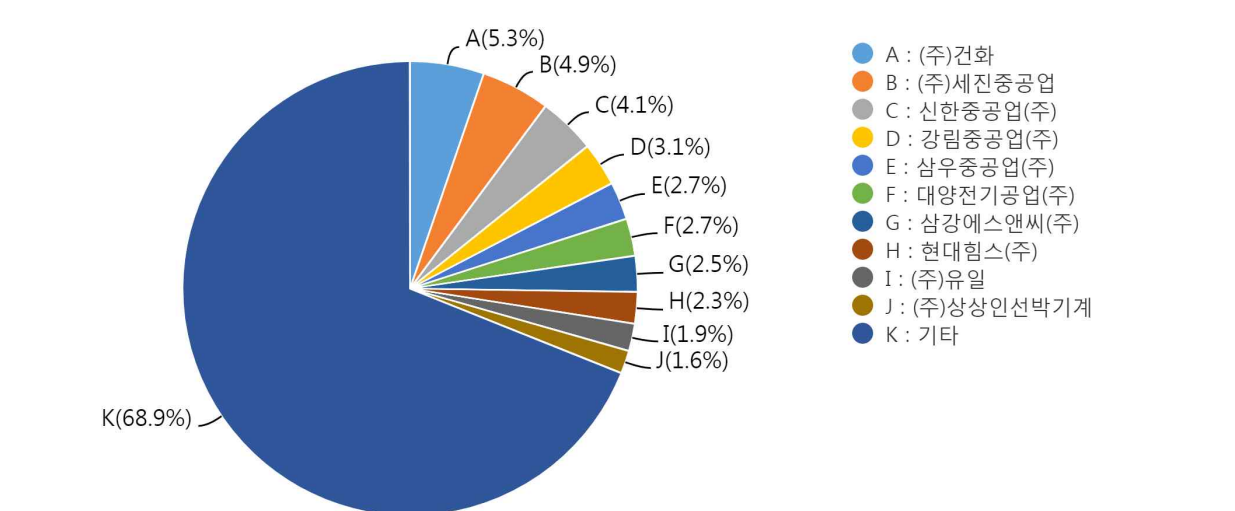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강선 건조업 시장 점유율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년 기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C31114)에는 (주)건화, (주)세진중공업, 신한중공업(주) 등 2,000여 개 기업이 주요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분석해보면, (주)건화 5.3%, (주)세진중공업 4.9%, 신한중공업(주) 4.1%로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인 CR3는 14.2%, 허쉬만-허핀달지수(HHI)는 147로 시장집중도에 따라 분류하면 집중도가 낮은 시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주요기업 참여 비중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세계 선박용 배관 시장규모는 2024년 27.7억 달러로 성장 전망

산업연구원의 시장분석에 따르면, 세계 선박용 배관 시장규모는 2015년 15억 달러, 2020년 20.8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7.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세계 선종별 배관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산업연구원, NICE디앤비 재구성

■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2020년 1,400억 달러로 전망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는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상플랫폼 시장은 2010년 372억 달러에서 2020년 749억 달러로 연평균 3.56%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림 7]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지식경제부,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선박배관을 구성하는 파이프 스폴이 주력 품목

동사는 선박배관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단일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파이프 스폴, 파이프 모듈유닛, 가열코일 등의 주력제품과 철의장, 도장 및 선박수리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

■ 지역별 사업부의 분업화된 영업전략과 유연한 생산능력 보유

동사는 국내 생산시설을 3개 사업부로 분업하여 각각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본사인 진해사업부는 중소 조선업체와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녹산사업부는 중대형 조선소와의 직접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지사사업부는 미래사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1. Pipe Piece

배관작업은 선박을 비롯해 발전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등의 건설프로젝트에서 비용부담과 규모가 가장 큰 단일공정으로, 파이프 스폴 프리패브(Pipe Spool Prefabrication), 파이프 모듈유닛 현장조립(Pipe Module Unit Yard Assembly) 및 현장설치(Onsite Installation)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파이프 스폴은 프리패브 공장에서 원자재를 다수의 피스로 절단한 후 절곡하거나, 파이프 피스에 피팅류(플랜티, 엘보우, T자형 강 등) 또는 다른 파이프 피스를 끼워 맞춰 가접하고 용접을 통해 제작한 배관 중간재이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파이프 스폴로 이루어진 파이프 모듈유닛은 배관의 반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는 가장 일반적인 배관용 탄소강관(Carbon Steel Pipe)과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tainless Steel Pipe), 동관(Copper Pipe)을 주자재로 하여 이를 용접, 가공하여 도금, 도장 등의 후처리를 거친 후 각 사에 납품하고 있다.

[그림 8] Pipe Piece



*출처: 동사 홈페이지

2. Heating Coil

Heating Coil은 글자 그대로 물이나 공기, 유류 등의 유체를 데우기 위해 온수나 증기를 통과시켜 그 주변의 유체를 가열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선박용 기자재이다. 특히 선박내 유류 저장 탱크 등에 설치되어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많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동사는 Heating Coil 제작을 통해 Pipe Piece를 제작하여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용도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다.

동사의 Heating Coil은 중대형 선박의 연료유, 화물유의 점도를 낮춤으로써 펌프에 의한 이송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관을 여러겹으로 이어 코일 형태로 감거나 라디에이터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그림 9] Heating Coil



*출처: 동사 홈페이지

3. Module Unit

동사의 Module Unit은 단순통로용 배관이 아닌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하며, 선박의 상갑판용 유체/기체의 이동을 위한 Upper Deck Unit, 선내 보일러의 연소용 Fuel Oil을 적정 압력과 온도로 공급하는 시스템인 M.E.F.O Supply Unit, 메인 엔진에 적합한 용량, 압력, 온도를 갖춘 H.F.O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L.O.H.F.O Phrihier Unit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10] Module Unit



*출처: 동사 홈페이지

4. 플랜트용 Pipe Piece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원자력설비와 정유설비, 해양시추설비, 담수화설비 등 설비 자체의 고도의 위험성과 바다에 인접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플랜트용 Pipe Piece는 고온과 고압,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고가의 원재료와 최상의 생산능력이 요구된다. 동사는 2010년 8월 미국기계학회 규격인 ASME Stamp 취득 이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플랜트용 Pipe Piece의 제작에 요구되는 용접방법과 품질수준을 체득하였다. 동사는 오리엔탈정공 Living Quarter, Caission Floating Dock, NOBLE사 Drillship의 배관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1] 해양, 육상플랜트 배관



*출처: 동사 홈페이지

5. 철의장 및 Pipe Piece 도장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원자력설비와 정유설비, 해양시추설비, 담수화설비 등 설비 자체의 고도의 위험성과 바다에 인접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플랜트용 Pipe Piece는 고온과 고압,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고가의 원재료와 최상의 생산능력이 요구된다. 동사는 2010년 8월 미국기계학회 규격인 ASME Stamp 취득 이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플랜트용 Pipe Piece의 제작에 요구되는 용접방법과 품질수준을 체득하였다. 동사는 오리엔탈정공 Living Quarter, Caission Floating Dock, NOBLE사 Drillship의 배관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2] 도장품목(좌) 및 도장시설(우)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유연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의 경기애 많은 영향을 받음

[그림 13] SWOT 분석



IV. 재무분석

2019년 주 거래처 수주 물량 확대로 매출 실적 반등,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2019년 주 거래처인 (주)오리엔탈정공, 대선조선(주) 수주 물량 확대로 매출 실적은 반등하였으나, 수익성은 적자 기초를 지속하고 있어 적정 원가율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 2019년 매출 실적은 반등하였으나, 수익성은 적자 기초 지속

동사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선박용 배관 제조(파이프 스펴)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단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용 파이프 스펴은 탄소강관(Carbon Steel Pipe)과 스테인리스강관(Stainless Steel Pipe), 동관(Copper Pipe) 제조와 도장(파이프&철의장)을 주요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형별 매출 구성은 선박용 파이프 스펴 제조 부문 92%, 도장(파이프&철의장) 8%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국내 매출 100%로 구성되었다.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사업부인 종속기업 대련동방전기 유한공사의 지분매각 계약을 2017년 4월 7일 체결함에 따라 동 사업부문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동년 8월 대련동방전기 유한공사의 지분양도가 완료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은 바, 이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로 2017년 193억 원(-33.9% YoY), 2018년 171억 원(-11.6% YoY)로 2개년 매출액 감소세를 지속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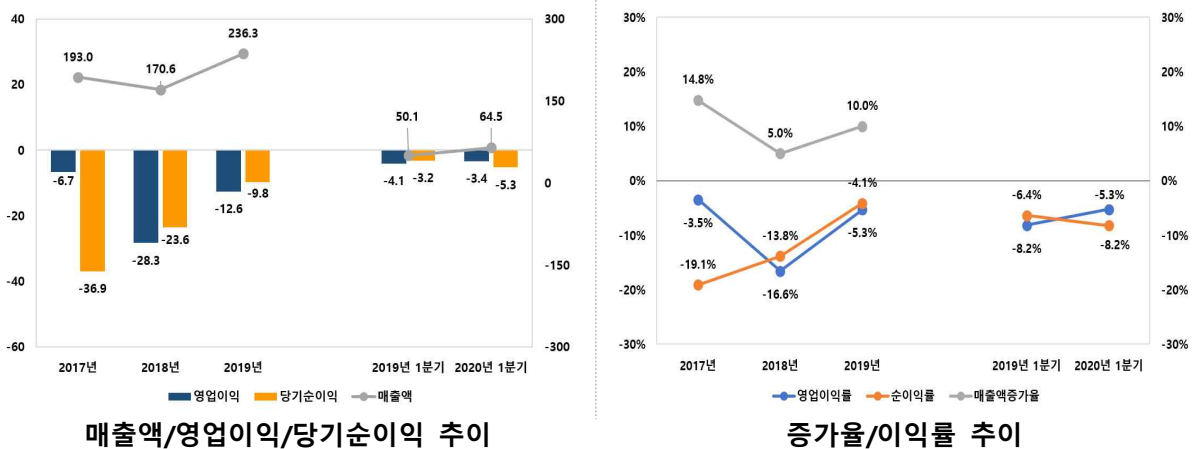
다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동사의 주 거래처인 (주)오리엔탈정공의 경우 2019년 국내 조선업계 경기 일부 회복과 주요 경쟁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의 영향으로 영업실적 개선된 바, 이는 동반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67% 수주 물량이 증가하였고, 대선조선(주) 또한 전년 대비 18% 수주 물량이 증가하며 2019년 매출액은 236억 원(+38.5% YoY)으로 주요 매출처의 수주 물량 확대가 동사의 매출 반등을 견인하였다.

한편, 파이프 스펴 제조의 가동률은 2018년 85.1%에서 2019년 88.1%로 전년 대비 3%p 상승하였고, 이는 곧 원가율 완화로 이어져 매출액원가율은 2018년 103.1%에서 2019년 94.1%로 개선되었기는 하나 경쟁심화로 가격 교섭력 미흡하여 철광석,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마진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바, 저마진 수주로 인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2018년 대비 손실 폭은 축소되었으나 2019년 영업손실 13억 원(+44.4% YoY), 당기순손실 10억 원(+41.5% YoY)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며 여전히 적자기조를 지속하였다.

■ 2020년 1분기 외형 성장세 지속되고는 있으나 적정 원가율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수익성은 적자 기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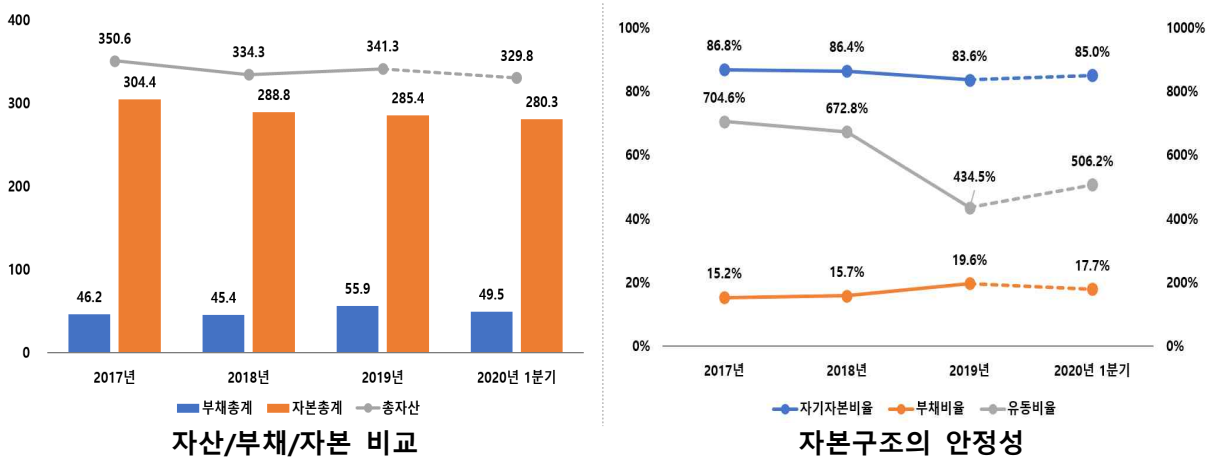
동사는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6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매출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기 매출액을 상회하는 원가 및 판매비 부담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영업손실 3억 원(+81.0% YoY)으로 여전히 적자 기초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분기손손실 5억 원(-166.3%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의 규모가 0.2억 원에서 3.1억 원 가량으로 확대되면서 영업외수지가 저하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림 14] 동사 연간 및 1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3)

[그림 15] 동사 연간 및 1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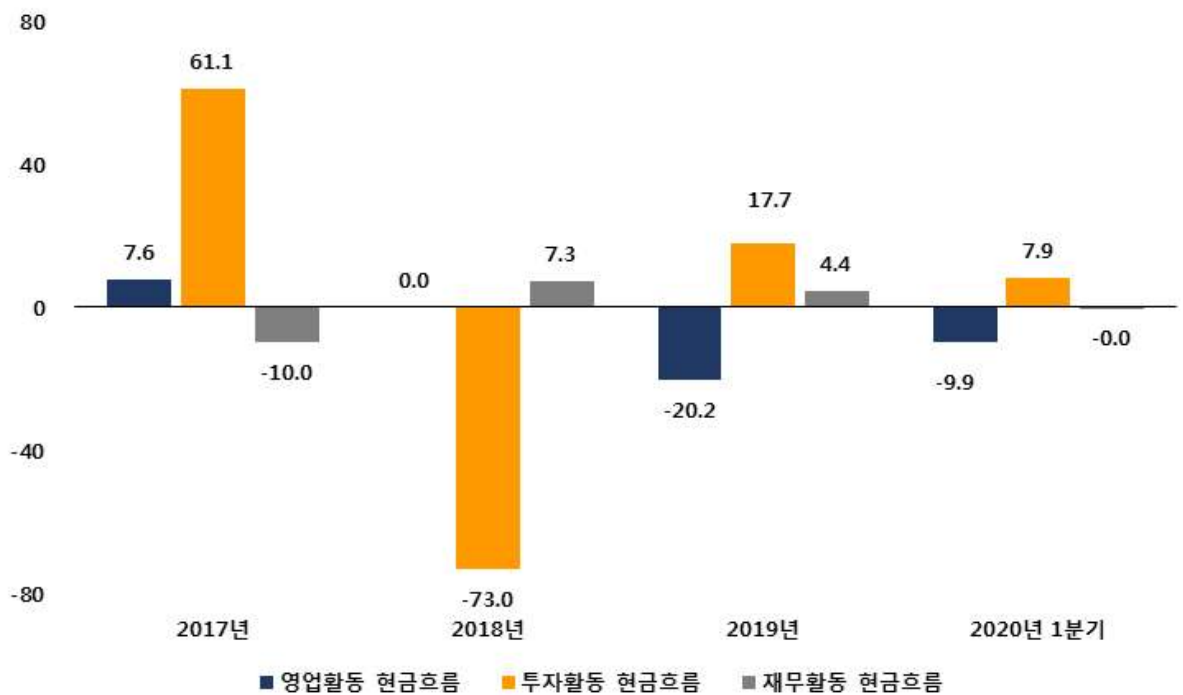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3)

■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미흡한 수준이나 무난한 자금유통성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

동사는 2019년 당기순손실 폭 확대와 매출채권 회수지연 등의 영향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상태로 전환되었고, 2020년 1분기 또한 영업현금흐름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자체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 가능한 상태로 2019년 말 3억 원에서 2020년 1분기 말 0.7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다만, 부채비율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외 전자단기사채 보유 등 이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가 가능하여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3)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별도의 기술개발이나 학문적 접근이 필요 없는 생산기술 기반 품목

동사의 선박용 파이프 스플은 별도의 기술개발이나 학문적 접근이 필요 없는 생산기술 기반 품목으로 가접·용접 관련 생산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다.

■ 매출 확대를 위해 선박 외에 육상, 해양 플랜트용 배관 시장영역으로 확대

동사는 선박용 파이프 스플 시장이 전방산업인 조선산업 업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비조선분야인 발전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육상 플랜트와 해양 플랜트용 배관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하였다.

동사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플랜트용 Pipe Piece의 제작에 요구되는 용접방법과 품질수준을 체득한 이후, 오리엔탈정공 Living Quarter, Caission Floating Dock, NOBLE사 Drillship의 배관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보유한 선박용 배관 제조기술은 숙련된 용접기술과 기계장치 성능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력이 판가름나는 일반적인 기술로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내용은 없으며, 향후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 외형 성장세는 지속되고는 있으나 적정 원가율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시점

동사의 2019년 매출액은 236억 원(+38.5% YoY)으로 주요 거래처인 (주)오리엔탈정공과 대선조선(주) 등 수주 물량 증가로 매출액이 반등하였으며, 2020년 1분기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65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 1분기 수익성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적정 원가율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 의견 없음